

겨울철 돼지 관리요령



조 석 행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돼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돼지에 불리한 조건을 해결하여
소득을 올려야 한다

“돼지” 하면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옛날 농촌 어느 집을 가도 초가집 한쪽 추녀에 연결하여 만든 돼지우리에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돼지막 울타리에 앞발을 올려 놓고 꿀꿀거리던 그 돼지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돼지우리는 텅 비고 그곳에 농기구들이 가득차 있으니 돼지는 점차 부업농가소득원에서 이탈하고 있는 반면 전업, 기업규모의 양돈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 농가에서는 돼지를 한두마리 키워 목돈을 마련하여 자식의 학자금, 관혼상제 등 매우 긴급하게 사용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 돼지를 농가로 환원,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돼지를 기르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며 그러자면 좋은 환경조건에다 유전성이 우수한 품종을 골라서 합리적으로 사양관리를 해야 한다. 이들 3가지 조건중에 품종은 우수한 것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 선택만 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과 사양기술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돼지의 특성에 알맞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최대한 조성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여 보다 많은 양돈소득을 올려야 한다.

특히,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돼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돼지에 불리한 조건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어야 돼지는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고 그로인해 소득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1. 돼지와 환경조건

돼지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환경조건에는 돈방, 수용두수, 사료와 같이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요인과 인위적으로는 조절이 비교적 어려운 기상환경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의 변화가 큰 곳에서 돼지를 사육할 경우에는 기상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능률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돼지의 체온조절

일반적으로 고등동물은 발열과 방열의 조절을 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고 있으나 돼지는 땀구멍의 발육이 부진하여 방열이 잘 되지 않으므로 여름철 더위에는 약하고 추위에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체중 60kg 이상된 돼지에서 해당이 되며 어디까지나 생명을 유지·연장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환경온도 차이에 따라서는 생리반응이나 생산반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외계온도와 자돈의 생리기능

새끼돼지, 특히 갓난새끼는 자기 체온조절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계온도가 떨어지는데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소화관내의 소화효소의 활성화도 약하고 생후 3주령까지는 거의 어미돼지 젖만을 소화시킬 정도이기 때문에, 보조사료의 질이나 급여량에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섭취한 사료가 새끼돼지 체내에서 충분히 소화·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새끼돼지가 젖을 먹는 기간에는 비교적 보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체중 15~20kg 정도의 젖뎌 새끼돼지에 대해서는 보온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시기는 아직 낮은 온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때이다. 또 체중이 30~40kg 정도에 이르게 되면 사료 먹는 양이나 소화력도 왕성하여져서 언뜻 보아 튼튼한 것 같이 보이나, 심한 추위에는 역시 민감하여 털이 길어지고 거칠어지면서 웅크리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육이 정지되기도 한다.

4. 외계온도와 증체 및 사료요구량

육성자돈에서는 환경온도가 20~25℃ 정도에서 일당증체량이 가장 높고 75kg이상의 돼지는 15~20℃에서 가장 잘 자라게 된다.

돼지가 1kg 증체하는데 필요한 사료량도 이상과 같은 온도 범위에서 가장 사료를 적게 먹고 많이 클 수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돼지에 알맞는 온도를 가능한한 조절해 주어야만 발육촉진은 물론 사료의 이용효율도 증대시킬 수 있다.

5. 외계온도와 영양소의 이용

체중이 20~40kg인 때는 돼지의 골격 형성과 살코기의 생산이 가장 왕성한 때이며 육성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돼지의 체내에 섭취된 영양분은 첫째로 돼지의 생활에 필요한 열 발생에 이용되고 남은 영양분이 살과 피가 되나, 이때 외계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돼지의 체온을 외계온도에 빼앗기게 되므로 섭취한 대부분의 영양분을 열 발생만을 위하여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발육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사료효율을 저하시켜 그후의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겨울철에는 보온대책이 필요하다.

6. 자돈에 필요한 온도

체온조절이 불충분한 생후 3일령까지의 자돈에서는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34~35℃까지 보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질상 자돈이 큰 불편없

〈표〉 자돈에 필요한 온도

생 후 일 령 (일)	생후~2	3~7	8~14	15~21	22~28	29~35
온도범위(℃)	28	26~28	24~28	24~26	22~26	20~24

겨울철에는 돼지에 알맞은 온도를 가능한한 조절해 주어야만 발육 촉진은 물론 사료의 이용효율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필요한 온도는 다음과 같다.

7. 외계온도와 사료급여량

돼지는 외계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발육도 하기 위해서는 정상외계기온에서 보다는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온도가 1℃ 내려감에 따라서 4%의 영양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며 한겨울에는 평소 사료급여량의 15~20% 정도 더 급여해야 한다.

8. 보온방법

보온방법으로는 보온상자, 온수물통, 적외선 전구, 보온매트, 온수보일러, 돈방바닥에 전열선 설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육규모, 돈사시설,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보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9. 돈사의 방한 대책

돈사내에는 충분한 태양광선이 들어오도록 하고 창문, 출입문은 비닐 등을 부착할 것이며, 천정에는 스티로폼 등을 깔아서 돈사밖으로 열이 새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가능한한 사

육밀도를 높여서 돈사내의 온도유지에 힘써야 한다.

보온에만 치중하다 보면 돼지 자체의 증기나 분뇨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와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공기가 탁하여지거나 습기가 많아져서 호흡장애, 피부병, 설사 등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돈사에서는 겨울철에 습기가 과도하게 많아지기 쉬우니 환기에 유념하고 환기창을 설치해야 하며, 환기가 나쁘면 돈사내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한다.

10. 겨울철 분만시 관리

추운 겨울철에 분만할 경우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새끼가 얼어죽을 우려가 있으니 분만예정일을 미리 알고 분만에 대비하여야 한다.

돼지는 분만이 가까워지면 자리깃을 물어다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하며, 거동은 매우 불안해지고 식욕은 감퇴된다.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 대략 12시간 이내에 분만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분만이 시작되어 새끼돼지가 나오면 준비한 탈지면이나 헝겊으로 우선 입과 코 주위의 점액을 깨끗이 닦고, 이어서 몸 전체를 싸고 있는 점액을 닦아 준다.

다음에 배꼽줄을 2~3cm 정도 남기고 자른 다음, 자른 부위에 옥도정기를 발라 준다. 이와 같이 한후 분만된 새끼돼지의 생시체중을 달고 새끼돼지 수용상자에 넣어서 따뜻하고 건조하게 해주며 분만이 끝나면 젖을 먹인다. 그러나 분만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먼저 나온 새끼는 분만 도중이라도 젖을 먹여도 된다.

분만이 끝나면 보통 2시간 이내에 태반이 배출된다. 어미돼지는 본능적으로 태반을 먹으려 하는데, 태반을 먹는 습성을 들이면 새끼를 잡

아먹는 악습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어미돼지가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1. 피부손질

돼지의 피부는 피지선이 퇴화되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되어 때가 끼기 쉽고 가려움증이 생겨서 피부병에 걸리는 수가 많다. 돼지는 마찰성이라는 본성이 있어서 벽 또는 나무기둥 등에 몸을 마찰하지만, 피부에 때가 끼어 가려움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겨울철 부적당한 사양관리에 의해서 영양장애가 일어나면 돼지의 몸이 불결하게 되어 외부기생충인 이가 생기고 피부병이 발생하게 된다.

돼지의 몸을 솔같은 것으로 손질해 주면 직접적으로 피부, 피모 등을 깨끗이 하여 피부호흡을 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나아가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돼지의 성질도 온순하게 되어 관리에 편리하게 된다.

12. 일광욕

각종 생물의 발육 및 번식에 태양광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태양광선은 동물의 생리에 있어서 적혈구의 조성, 칼슘의 대사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번식을 원활하게 해준다. 특히 겨울철에는 충분한 태양광선을 돼지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유리창을 통해 돈사내로 들어온 광선은 돈을 따뜻하게 해주기는 하나 자외선을 잃으므로 충분한 태양광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돼지에게는 직사광선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

나 여름철에 직사광선을 장시간 쬐이게 되면 일사병이 발생하게 되므로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막아 주어야 한다.

13. 질병예방

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공동예방접종, 돈사내외 및 출입하는 사람, 자동차 등의 철저한 소독, 그리고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출입제한, 병든 돼지의 조기발견 및 격리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신속한 방역대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양돈장에는 긴급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병든 돼지의 이동금지, 전염병의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일체 새끼돼지의 시장구입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속히 관계 당국에 신고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돼지전염성위장염과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에 의한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14. 맺는 말

이제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국내에서의 경쟁시대가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우르과이라운드를 방송, 신문 등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하루 빨리 대응력을 길러야 축산업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다행히도 양돈은 경쟁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모두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겨울철 돼지의 합리적인 관리부터 실천해야 경쟁력 및 양돈소득을 증대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